



준비와 목탁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인천국제공항 봉축행사 '난관'

불교 최대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을 몇 일 앞두고 불교계 전체가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교계 지도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는 봉축법어를 발표했으며, 각 종단에서는 봉축 행사 및 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봉축행사를 위해 경전사십층석탑(국보 제86호)을 8m규모로 형상화한 장엄등과 불교문헌, 진인 등을 형상화한 100여 개의 중형등을 포함 총 170여 작품의 등을 준비해왔다. 이는 2월 12일 제1차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장지관, 이하 종단협)에서 결정된 "진각종에서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전통등 전시를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연인원 27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최대 국제공항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한국의 출입문'이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불교문화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막대한 홍보효과를 물론 '봉축 분위기'를 한층 밝고 환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진

행될 예정이었던 인천공항 전통등 전시에 큰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을 대여해 큰 규모의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예정되었던 문화행사·공연 등으로 시간과 규모에 큰 제약이 받게 됐기 때문이다. "전시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이상욱 차장(운영총괄팀)은 "밀레니엄홀은 매년 연말에 1년간의 공연 및 전시계획을 세워놓는다"며 "불교계에서 갑자기 넓은 공간과 긴 시간을 요하는 전시의 협조를 요청해와 (공향측도) 아쉽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종단협이 행사 주체를 결정한 것이 2월, 진각종이 공향측에 전시대관 문의를 한 것이 3월임을 생각했을 때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행사를 준비할 때 종종 불거져 나왔던 주먹구구 밀어붙이기식 진행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에서 개최까지 행사를 여법하게 준비·진행하기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또 한번 절실하게 느껴진다.



조계사 후불탱화 점안법회 봉행

조계사(주지 세민)는 4월 16일 대웅전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점안식에는 무관 스님(前 해인사 해인율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점안된 후불탱화는 대웅전에 모신 삼존불(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불)중 아미타불, 약사불 후불탱화다. 1년 여에 걸쳐 통도사 서명암 동원 스님이 불모로 참여한 후불탱화는 가로 4.5m 세로 7.5m 크기다. 조종섭 기자

군포교 성패 군승 독신 여부에?

'비구승 예외조항' 원로회의 인준 앞두고 대립 양상

조계종 제180회 임시총회(총회)에서 통과(투표인원 65명 중 62명 찬성)된 '군승의 독신 비구승 예외조항(중헌 제9조 2항) 삭제'의 원로회의 인준을 앞두고 일부 군승들이 몇몇 원로스님과 연계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주로 영관급 기혼 군승으로 알려진 이들은 육·해·공 군승 일동 명의로 조계종 원로회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원로대체 큰스님들의 판단에 군포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라는 제하의 문건을 돌렸다.

군승들은 "총회의 개헌 결정이 군종특별교구와 어떤 협의나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됐다"며 "원로회의에서마저 인준되면 군승의 수급 예외조항이 입법된 이후 군승제도는 물론 장기복무를 통한 군포교 전 문가 양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러 군승들은 "논의 절차를 배제한 이번 결정은 군포교 조직을 뿌리

채 흔들 중대한 사안"이라며 "총회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도 원로회의의 스님들에게 "독신만 주장하면 조계종 군포교는 희망이 없다"며 중헌 제9조 2항을 삭제하면 군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비역군종회장 계성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과 종회의원 정범 스님 등은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승 등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혔다.

계성 스님은 "예비역군승은 중헌 예외조항이 입법된 이후 군승제도는 지금까지 30여년 간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중헌이 개정되면 20년 후 군승제도는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이러 스님은 "오히려 독신군승이 기혼군승과 부딪히기 싫어 제대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재 장기복무 신청자의 경쟁률이 4:1에 이른다. 절대 장기복무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범 스님은 "군종교구 상임위원을 4년, 신홍불교대책위원장을 2년 맡으며 군종교구에 줄곧 설명해왔다"며 "기혼군승 40여 명이 90여 비구군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스님은 "군승을 결혼시켜야 수급이 안정된다는 일부 군승들의 주장은 포교를 위해 비구 종단인 조계종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말과 같다"고 힐난했다.

한편, 중헌 개정안을 인준할 조계종 제33차 원로회의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종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 관혼상제 전문 서비스 제공"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발기인대회 봉행



14일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발기인대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위원장 배관성) 발기인대회가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발기인 대회는 경과보고, 인사말, 축사에 이어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의 '불교 상조 및 상·제례 산업 현황과 전망'과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설립 유래를 준비위원장의 '불교생활의례문화원(준)사업계획' 발표, 친교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배관성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7년부터 진행된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준비과정이 쉽지 않아 중도

포기도 생각했다"며 "불교 의례·의식이 왜곡되고 타종교에서 부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불자들에게 불교식 관혼상제 전문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강동구 교수는 "타종교에 비해 불교 상제제 시장의 현황은 크게 미약하다"며 불교 상조 및 장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죽음관련 이슈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 참여와 대안 제시 △노인복지시설, 임종의례 정립과 확산, 상조회 체계화 △불교 장사 시설 확충 △불교식 제례 모법의 개발과 확산을 제시했다. 이상연 기자

마곡사 범용 스님

'공권정지 5년'

말사 주지 품신시 금품을 수해 검찰 고발까지 이르렀던 마곡사 주지 범용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길)은 4월 16일 제65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마곡사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내렸다.

심판부는 마곡사 재무국장 대광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3년을, 범용 스님에게 금품을 제공한 말사 주지 지용·서호 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마곡사 관련 직무비위로 징계회부 됐던 비구니 대일 스님은 공권정지 1년, 대관 스님은 법계강급 1급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호법부는 범용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조종섭 기자

한암 스님 추모 행사 '다채'

월정사 4월 22일~5월 7일 다례재 등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한암 스님(1876~1951)의 탄신 제134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마련됐다.



한암 대종사 진영.

평창 월정사(주지 정범)는 한암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탄신다례재를 4월 22일 오전 10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한다.

28~30일은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 정립을 위한 한암 대종사 수행력법이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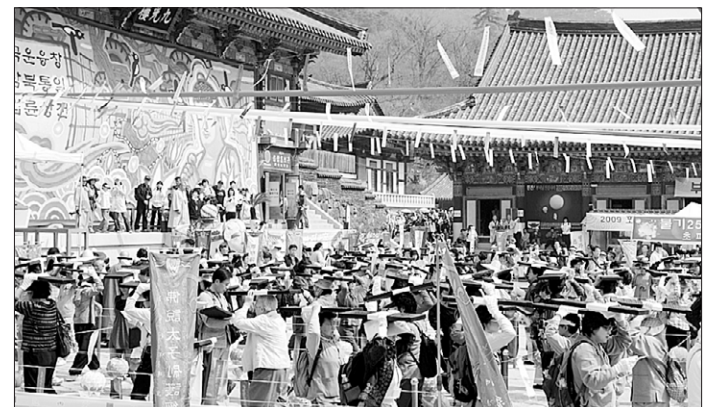
한암 스님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할 제3차 한암대종사

선사상 학술세미나는 '한암사상과 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5월 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학술세미나에는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이 '한암 선사

의 간화선'을, 신규택 교수(연세대)가 '한암 스님의 승가오교와 조계종의 수행'을,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한암의 종조관과 도의 국사'를,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탄허의 결사운동에 대한 새로운 조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암 스님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할 제3차 한암대종사



호국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봉행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신각)는 4월 11일 경내 대적광전 앞에서 제49회 호국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스님과 불자 8000여명이 참석해 경판을 들고 해인도를 돌려 국민인간을 발원하는 정대행진을 펼쳤다. 이날 함양 장수사지 후불탱화에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행사가 함께 열려 부처님오신날 봉축의 의미를 더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교입문 강사양성과정 개설

조계종 교육원 5월 19~21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은 5월 19~21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불교입문 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조계종 비구·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참선의 힘, 어떻게 전할 것인가 △신도의 마음, 깊이 읽기 △편안하고 친근한, 편 편(fun fun)법회 △명품스피치 △스토리텔

링 프로그램 등이 강의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찰 주지스님이 불교입문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올해년도 본 말사 주지연수를 대체할 것으로 인정받는다.

참가신청은 5월 15일까지, 선착순 40명. (02)2011-1807

조종섭 기자



선각종 국태민안기원 및 생전 예주시왕칠재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초의 혜명을 계승하고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하여 중생교화에 주력하신 각 사암 주지스님의 법체청안하심과 대소불사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축년 윤년을 맞아 중생들의 다짐생애 지은 업장소멸과 죄업을 생전에 참회하고 인로왕보살님과 염부제시왕님께 선법을 닦아 내생에 성불코져 발원하는 생전예주시왕칠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각 사암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는 수회 동참하시어 현존에는 무량한 복락을 사후에는 극락정토에 거듭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생전예수재 봉행위원장 원각 진원 합창

- ◆ 일 시 : 2009년 5월 17일 (음력 4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 올림포스호텔 특설법단 (☎ 032-762-5181)
- ◆ 주 최 : 대한불교선각종 인천 계양사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 ◆ 후 원 : 선각종 전국 교구 총무원 ◆ 증 명 : 종정 영담 정업 대종사

◆ 문의전화 : 인천 계양사 (인천시 동구 화평동 365-3호)

전화 032)765-3207 / 010-6359-7872 / 016-715-1085

선각종 총무원 (전남 강진군 옥천면 개산리 391번지)

전화 061)433-2233, 3233 / 팩스 061)433-2425 / 011-795-1420 진목스님